

<p>경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 산업생산지수, 전년동월대비 17.5% 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7월 서울지역의 생산지수는 76.5로 전년동월대비 17.5% 감소 - 7월 서울 제조업부문 출하 감소, 재고 증가로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됨 ○ 서울 대형소매점 전년동월대비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8.3%, 대형마트 6.5% 증가로 전체적으로 7.5% 증가 ○ 7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.4% 상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활물가 전년동월대비 4.2%,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대비 9.7% 각각 상승
<p>고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3.2%로 나타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7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.2%로, 전년동월대비 0.7%p 증가 ○ 7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2.8%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.8% 증가하였으며,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.3% 상승하며 꾸준히 증가 ○ 서울의 고용률은 0.8%p 상승한 60.5%로 전국대비 0.5%p 차 ○ 서울의 실업률은 0.3%p 하락한 4.2%로 전국대비 0.9%p 차
<p>부동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7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하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북지역(-0.1%)은 용산구(-0.2%), 마포구(-0.1%)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하락 - 강남지역(-0.1%)은 강동구(-0.4%), 동작구(-0.2%)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하락 ○ 7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북지역(0.7%)은 노원구(1.4%), 중구(1.0%)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 - 강남지역(1.0%)은 강동구(1.9%), 강남구(1.8%)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
<p>금융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6월 기준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40조 8,335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5조 2,982억원(0.97%) 감소 ○ 서울의 7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7월 중 신설법인 수는 1,918개로 전년동월대비 3.7%(68개) 증가, 부도업체수는 45개로 전년동월대비 19.6%(11개) 감소 ○ 7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7월 서울의 수출은 55.5억 달러, 수입은 105.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41.6%, 17.5% 증가 -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

| 생 · 산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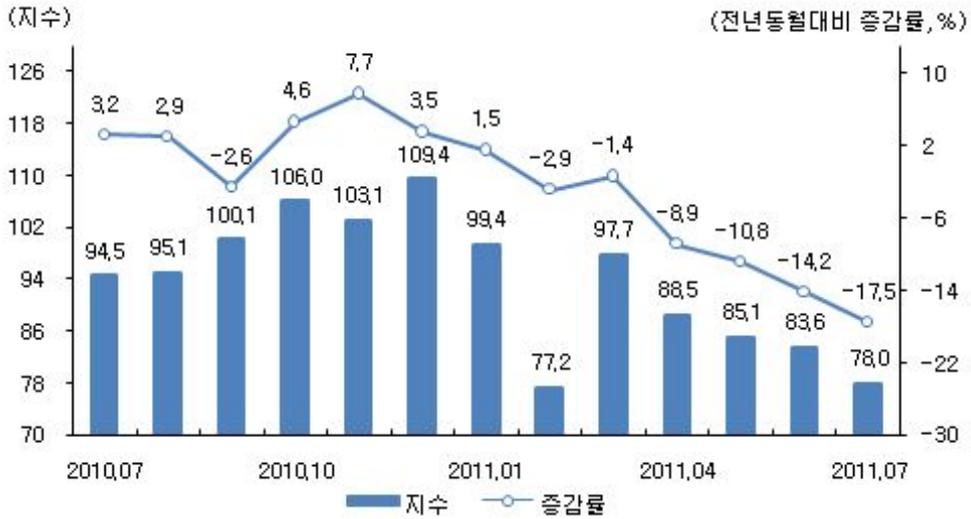
서울의 7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

■ 서울의 7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

- 서울의 7월 산업생산지수는 76.5(2005=100)로 전년동월대비 17.5% 감소
-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2.4%,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0.8% 감소
- 전년동월대비 인쇄 및 기록매체(2.8%) 증가, 그 외 의복 및 모피(-12.5%), 전기장비(-43.8%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음향통신(-25.3%), 기계장비(-23.4%)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중공업 부문의 감소가 서울의 산업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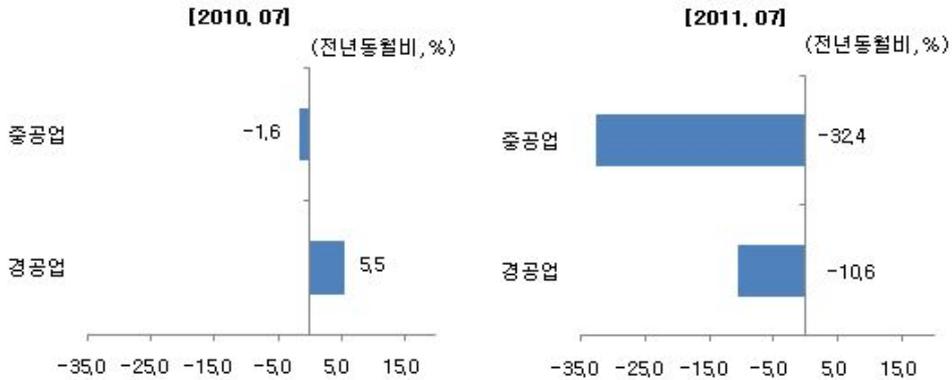
■ 전국의 7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전국의 7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.8% 증가, 전월대비로는 0.4% 감소
-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(-18.3%), 비금속광물(-5.6%) 등은 부진 하였으나, 반도체 및 부품(12.8%), 자동차(16.0%) 등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(-3.4%) 하수·폐기물처리(-5.1%)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(7.6%), 도매소매(3.0%), 보건사회복지(5.0%), 운수(4.2%) 등이 증가하여 3.8% 증가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산업생산(중공업, 경공업) 증감률

| 출하 · 재고 순환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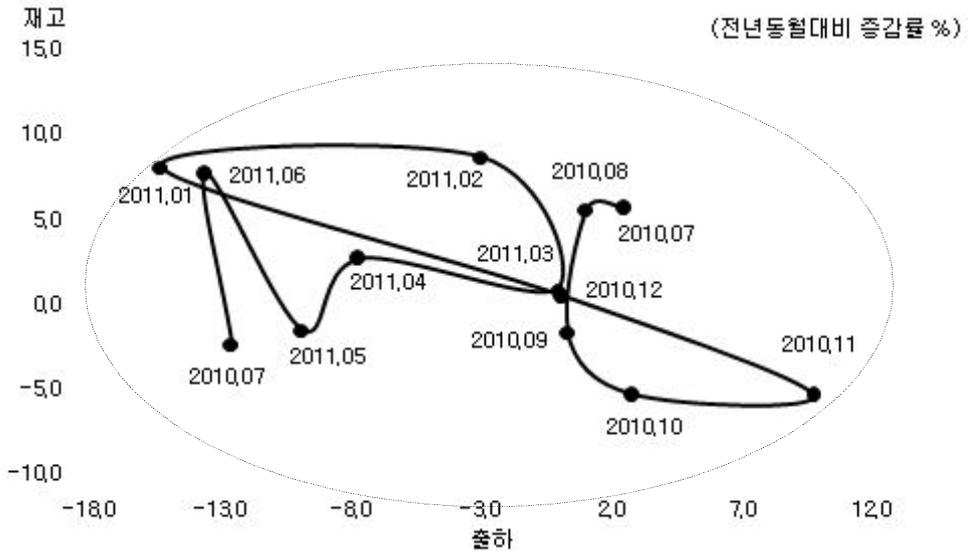
서울의 7월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

■ 서울의 7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, 재고 증가

- 서울의 7월 재고지수는 155.7(2005=100)로 전년동월대비 2.4% 감소
- 전년동월대비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
- 출하 감소, 재고 증가하여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(<Box> 참조)

<참고> 출하·재고 순환 상관표

경기수축기	경기회복기	경기확장기	경기하강기
출하↓	출하↑	출하↑	출하↓
재고↓	재고↓	재고↑	재고↑
재고조정	재고감소	의도된 재고증가	재고누증



<그림> 서울의 출하·재고 증감률 추이

| 소 · 비 |

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

■ 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6,239억으로 전년동월대비 7.5% 증가
-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8.3% 증가, 대형마트 6.5%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백화점 정기바겐세일 등의 영향과 여름방학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

■ 서울의 7월 대형종합소매업의 판매액 중 패션용품이 1위

- 대형종합소매업의 판매액 1조 6,239억원 중 패션용품이 37.2%인 6천48억원, 식품이 32.3%인 5천245억원, 생활용품이 18.0%인 2천929억원을 판매
- 권역별로는 4권역(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)이 36.3%인 5천888억원을 판매하였고, 다음으로 3권역(동작, 관악, 영등포, 금천, 구로, 양천, 강서), 1권역(종로, 중구, 용산, 마포, 서대문, 은평), 2권역(광진, 성동, 동대문, 중랑, 성북, 노원, 강북, 도봉) 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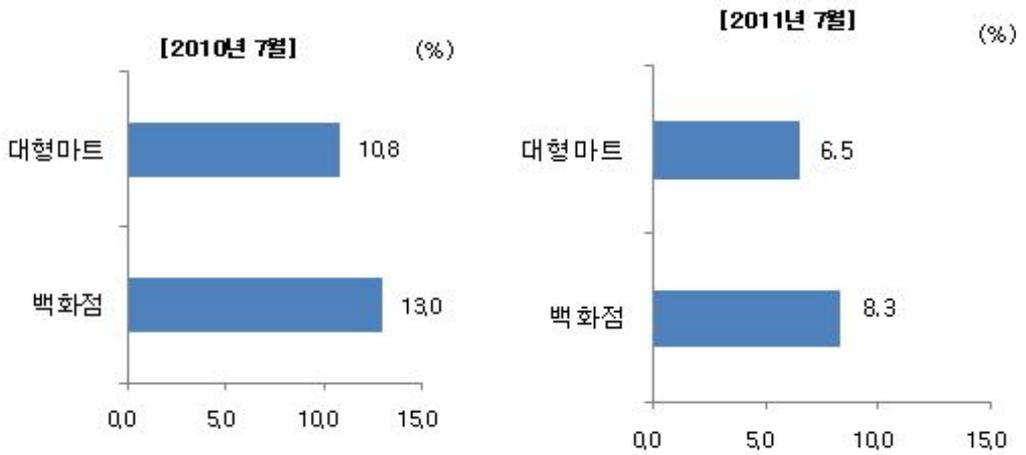
■ 전국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전국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5조 953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0.2% 증가
-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0.9% 증가, 대형마트는 9.8% 증가
- 유형별로는 컴퓨터·통신기기, 가전제품,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12.6% , 오락, 의복 등의 준내구재 4.0% 증가, 식료품,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.1% 증가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

| 물 · 가 |

서울의 7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

■ 서울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7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20.4(2005년=100.0)으로 전월대비 0.7%, 전년동월대비 4.4% 각각 상승
- 상품부문은 전년동월대비 7.3% 상승하였으며 그 중 농축수산물은 12.0% 상승, 서비스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.7% 상승하였으며 그 중 집세는 4.4%, 공공서비스 1.4%, 개인 서비스 2.7% 각각 상승

■ 서울의 7월 전년동월대비 생활물가지수, 신선식품지수 각각 상승

-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7%, 전년동월대비 4.2% 각각 상승
- 생선류, 채소류,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9.7%, 전년동월대비 9.7% 각각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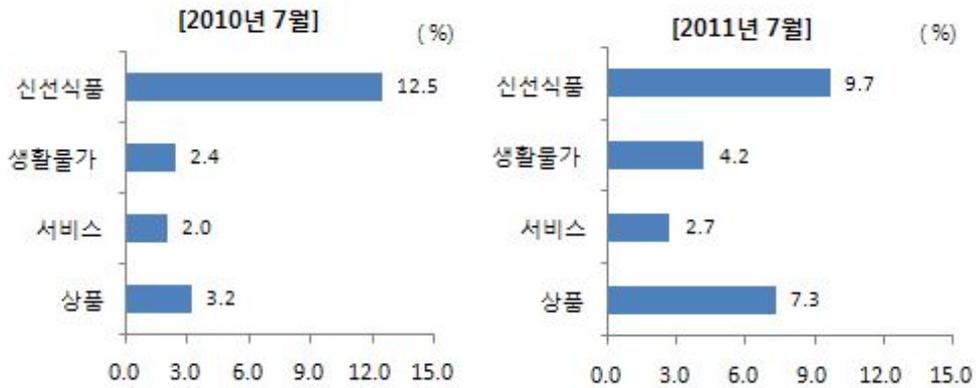
■ 전국 7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전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1.4(2005년=100)으로 전월대비 0.7% 상승, 전년동월 대비로는 4.7% 상승하여 7개월 연속 4% 대 상승세
-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8%, 전년동월대비 4.8% 각각 상승,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8.1%, 전년동월대비 9.0% 상승
-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, 대구, 대전 등 5개 시도는 0.8~1.2%씩 상승하였고, 서울, 부산 등 8개 시도는 0.7%씩 상승하였으며, 강원, 충남, 제주는 0.4~0.6%씩 상승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 (2005=100)

<그림>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



<그림>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

■ 서울의 7월 신선식품 중 채소류를 중심으로 상품 가격 상승

- 소비자들의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17.8% 상승, 양곡과 수산물의 경우 평균 2.0% 하락
- 채소류 중 배추는 33.5%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, 마늘의 경우 2.0% 증가하여 전반적인 채소류가 증가세를 나타냄
-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는 5.4% 하락한 반면 멸치는 2.2% 증가, 양곡류인 쌀은 2.7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

(단위:전월대비, 원, %)

품목	 배추	 멸치	 마늘
가격	1,625원	2,41원	6,803원
전월비	33.5%	2.2%	2.0%
품목	 쌀	 고등어	 돼지고기
가격	44,853원	3,929원	4,127원
전월비	-2.7%	-5.4%	-31.6%

주 : 멸치(건멸치), 고등어(중품), 배추(가을(상품), 고랭지(상품), 봄(상품), 월동(상품)),마늘(깐마늘(상품)), 돼지고기(박피 암) 기준,

자료: 농수산물유통공사, 축산물품질평가원

<그림> 서울시 신선식품 중 상위 6개

| 경 · 제 · 활 · 동 · 인 · 구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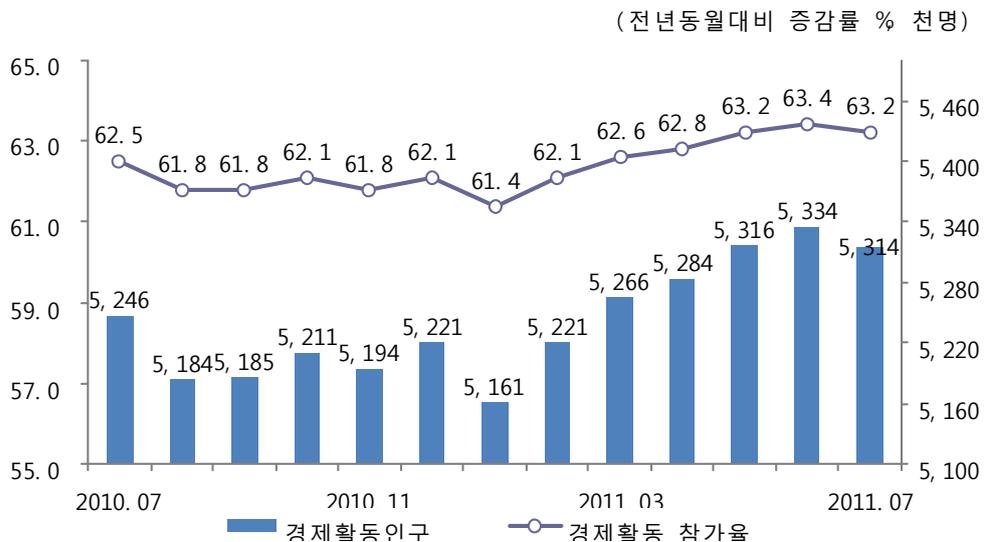
서울의 7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

■ 서울의 7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서울의 7월 15세 이상 인구는 8,40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천명(0.2%)이 증가
- 경제활동인구는 5,3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8천명(1.3%)이 증가
- 경제활동참가율은 63.2%로 전년동월대비 0.7%p 상승
- 비경제활동인구는 3,09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명(-1.6%)이 감소

■ 전국의 7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

- 전국의 7월 15세이상인구는 41,08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2천명(1.2%) 증가, 경제활동인구는 25,47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1천명(1.0%) 증가
- 경제활동참가율은 62.0%로 전년동월대비 0.1%p 하락
-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.8%로 전년동월대비 0.3%p 하락하였고, 여자는 50.7%로 전년동월과 보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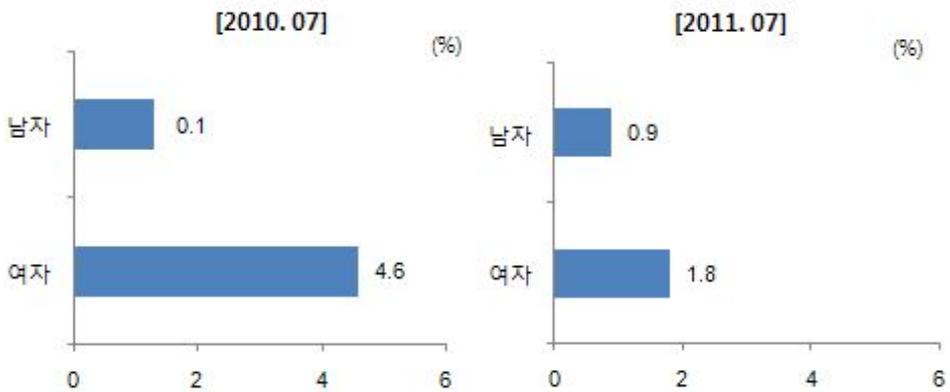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

■ 서울의 7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, 남자는 3,026천명, 여자는 2,28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.9%, 여자는 1.8% 각각 증가
-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4.3%, 여자는 52.8%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포함, 여자는 0.3%p로 각각 증가



<그림> 서울 성별 경제활동 인구 증감률



<그림>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률

| 취·업·자 |

서울의 7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

■ 서울의 7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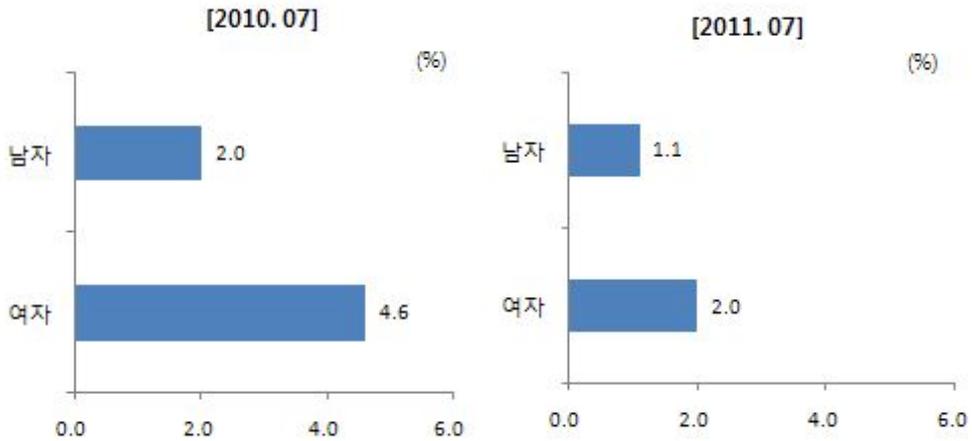
- 서울의 7월 취업자는 5,08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천명(1.5%)이 증가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,880천명, 여자는 2,20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2천명(1.1%), 여자는 44천명(2.0%)이 각각 증가
- 서울과(1.5%) 전국(1.4%)의 취업자 수는 0.1%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■ 전국의 7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전국의 7월 취업자는 24,63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5천명(1.4%) 증가
-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,29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6천명(1.2%) 증가하였고, 여자는 10,345천명으로 160천명(1.6%) 증가



〈그림〉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



〈그림〉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

■ 서울의 7월 청년층(15세~29세),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수 증가

- 서울의 7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.8% 증가
- 서울의 고령층(60세 이상)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.3%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(15세~29세)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(60세이상) 추이

■ 산업별로 농림어업, 건설업, 제조업 각각 감소

-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52천명(6.7%), 사업개안·공공서비스업 52천명(2.7%), 도소매·음식숙박업 29천명(2.2%)이 각각 증가
- 농림어업 1천명(-16.4%), 건설업 33천명(-8.3%), 제조업 23천명(-4.2%)은 각각 감소

■ 직업별로 사무종사자, 관리자·전문가 등은 증가

- 직업별로 보면,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134천명(15.5%), 관리자·전문가 2천명(0.1%)이 각각 증가
- 반면, 농림어업·숙련종사자 1천명(-10.6%), 기능·기계조작·조립·단순종사자 56천명(-3.8%), 서비스·판매종사자 4천명(-0.3%)은 각각 감소

■ 종사상지위별로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감소,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14천명(-1.4%), 무급가족종사자는 14천명(-7.8%)이 각각 감소
-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88천명(8.9%)이 증가하였으나, 임시근로자는 66천명(-5.2%), 일용근로자는 17천명(-3.8%)이 각각 감소

| 고 · 용 · 률 · 및 · 실 · 업 · 률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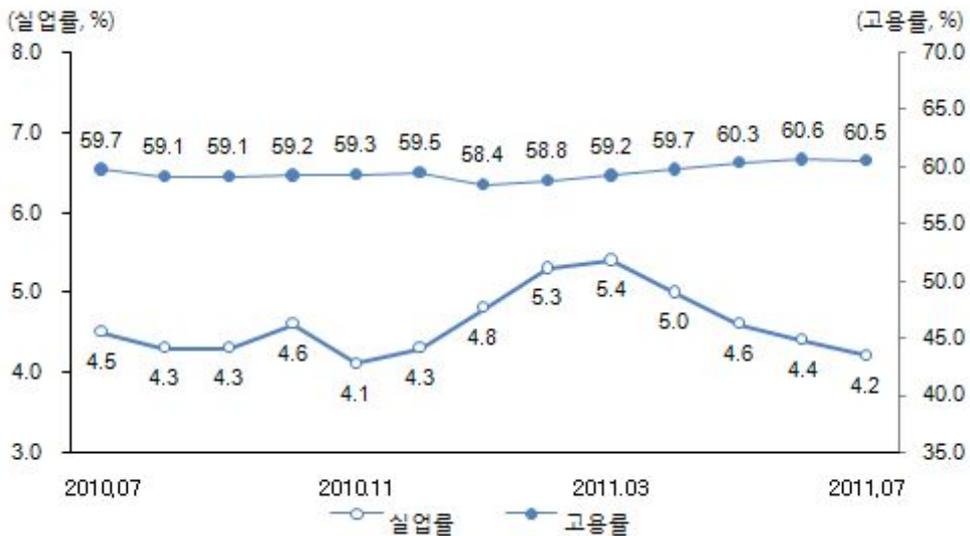
서울의 7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상승, 실업률 하락

■ 서울의 7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서울의 7월 고용률은 60.5%로 전년동월대비 0.8%p 상승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70.7%, 여자는 50.9%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.7%p, 0.8%p 상승
-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과 0.5%p 차이

■ 서울의 7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

- 서울의 7월 실업자는 22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(-3.5%)이 감소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146천명, 여자는 8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4천명(-2.9%), 여자는 4천명(-4.8%)이 각각 감소
- 실업률은 4.2%로 전년동월대비 0.3%p 하락, 전국대비(3.3%) 0.9%p 차이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4.8%, 여자는 3.5%로 전년동월대비 남자, 여자 모두 0.2%p 각각 하락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| 주 · 택 · 매 · 매 · 가 · 격 |

서울의 7월 주택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하락

■ 서울의 7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

-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.1% 하락
-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전월대비 -0.2%로 3개월 연속 하락 가운데,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0.1% 상승하였고 연립주택은 0.1% 하락

■ 전국의 7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

-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.4%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,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에 이어 공급물량 부족과 매수심리 호전 등으로 각각 0.8%, 0.9%로 상승세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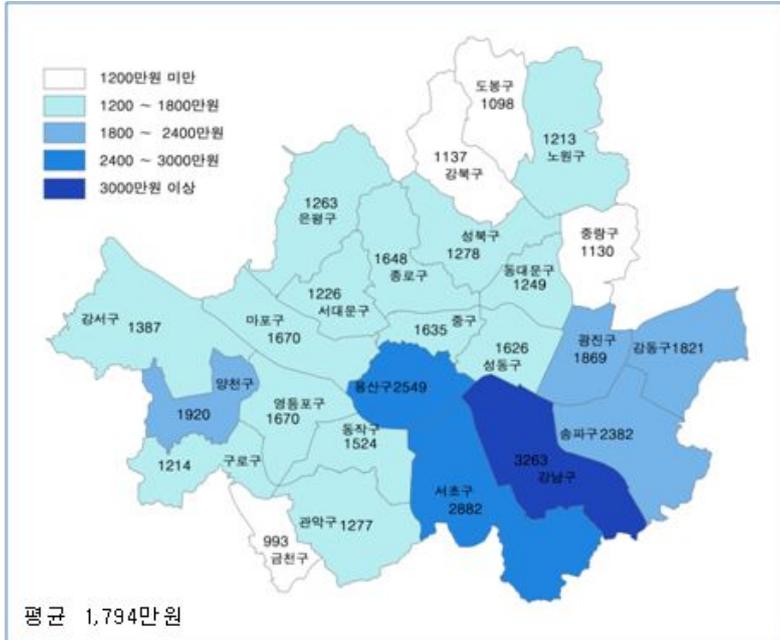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〈그림〉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- **강북지역은 광진구를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가운데, 용산구와 마포구는 하락하며 전월대비 0.1% 하락**
 - 광진구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아파트는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, 소형의 저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.2% 상승
 - 용산구는 주택거래 부진으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전월대비 0.2% 하락
 - 마포구는 계절적 비수기와 휴가철을 맞아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, 실수요자 중심의 소형 주택도 거래가 둔화되며 전월대비 0.1% 소폭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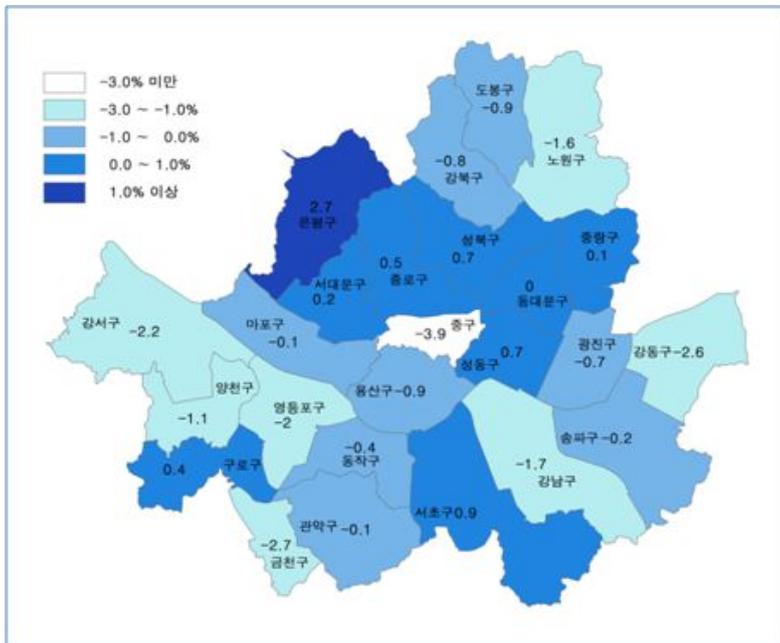
- **강남지역은 아파트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, 강동구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0.1% 하락**
 - 강동구는 재건축 아파트와 보급자리지구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, 보급자리지구 지정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수세가 둔화되며 전월대비 0.4% 하락
 - 동작구는 부동산경기 불확실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중·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전월대비 0.2% 하락

- **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소폭 하락**
 - 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794.0만원으로 전월(1,797.67만원)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5개월간 하락세 지속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(3,263만원), 서초구(2,882만원), 용산구(2,549만원), 송파구(2,382만원), 양천구(1,920만원), 광진구(1,869만원), 강동구(1,821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(993만원), 도봉구(1,098만원), 중랑구(1,130만원), 강북구(1,137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자료 : 부동산 114

<그림>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



자료 : 부동산 114

<그림>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| 주 · 택 · 전 · 세 · 가 · 격 |

서울의 7월 주택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상승

■ 서울의 7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

-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전세가격은 각각 전월대비 0.8%, 0.7%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상승세 지속
-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전월대비 1.1% 상승한 가운데,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각각 0.3%, 0.5%로 상승

■ 전국의 7월 주택전세가격은 수도권의 전세선호현상으로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

-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.8%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,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각각 전월대비 0.7%, 0.9%로 상승세 지속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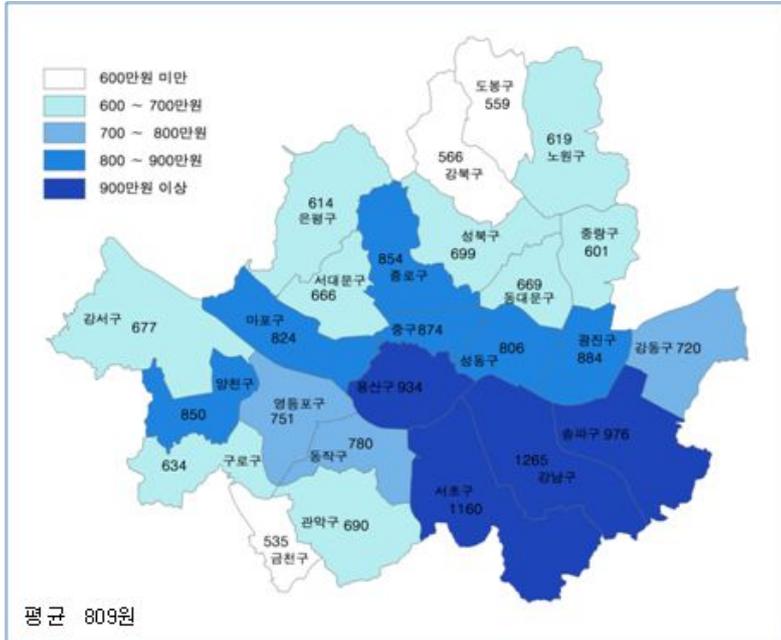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- **강북지역은 노원구, 중구에서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보이며 전월대비 0.7% 상승**
 - 노원구는 여름방학 학군수요와 가을 이사철을 대비한 수요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세공급 물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월대비 1.4% 상승
 - 중구는 한정된 전세물량에 비해 신혼부부 및 미리 전세를 구하여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.0% 상승

- **강남지역은 강동구, 강남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어 1.0% 상승**
 - 강동구는 보금자리지구 지정의 영향으로 강동구의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를 선호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전월대비 1.9% 상승
 - 강남구는 강남지역 전세 공급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재건축단지와 리모델링 단지의 이주수요와 여름방학 학군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.8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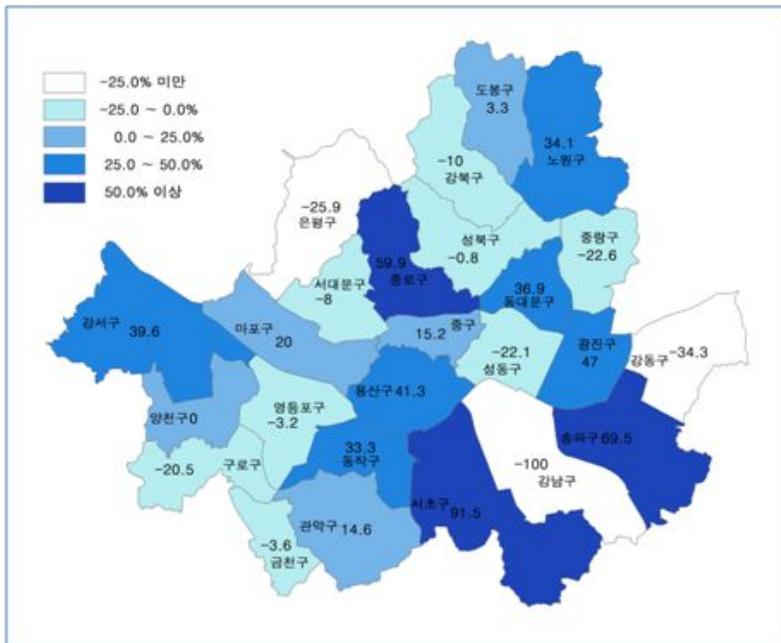
- **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지속적인 상승세**
 - 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08.62만원으로 전월(795.66만원)대비 상승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(1,265만원), 서초구(1,160만원), 송파구(976만원), 용산구(934만원), 광진구(884만원), 중구(874만원), 종로구(854만원), 양천구(850만원), 마포구(824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(535만원), 도봉구(559만원), 강북구(566만원), 중랑구(601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- **서울의 7월 아파트 전세가격/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**
 - 7월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/매매가격 비율은 48.0%로 전월(47.4%)보다 0.6%p 상승하며 지속적인 상승세
 -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/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8.7%보다 10.7%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(11.1%p)보다 하락
 -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50.4%, 강남 46.0%로 강북이 강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·북간 전세가격/매매가격 비율은 상승세 지속



자료 : 부동산 114

<그림>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



자료 : 부동산 114

<그림>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| 시 · 중 · 자 · 금 · 사 · 정 |

서울의 7월 국고채 전월동월대비 감소

■ 7월 중 국고채 전월대비 상승

- 7월 중 국고채(3년)금리는 유럽 국가채무문제 등 해외요인의 영향으로 월중반 일시 3.68% 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유럽 재정위기 우려 완화 등으로 반등하여 전월대비 0.12% 상승

■ 회사채 금리 전월대비 소폭 상승, CD 금리는 상승세 지속

- 7월 중 회사채(3년) 금리는 전월대비 0.08%p 상승하여 7월 중 4.48%로 마감
- 7월 중 CD(91일) 금리는 전월대비 0.06% 상승하여 7월 중 3.59%로 마감

■ 장 · 단기 금리차는 전월대비 소폭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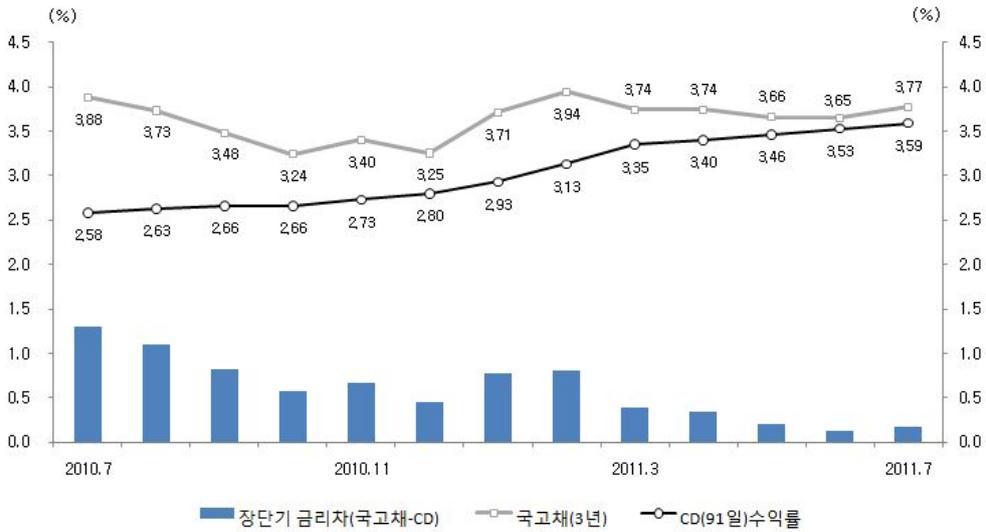
- 7월 중 장 · 단기 금리차는 국고채(장기) 금리의 소폭 상승과 CD(단기)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힘입어 전월대비 0.06%p 상승하여 0.18%로 마감

■ KOSPI 지수 전월대비 상승

- 7월 중 코스피는 유럽 국가채무문제 및 미국 정부부채 상한 협상의 전개상황, 국내외 기업실적 발표 등에 따라 2,110 ~ 2,180 사이에서 등락하다가 7월 중으로 2,150.0p로 마감

■ 7월 중 원/달러 환율은 하락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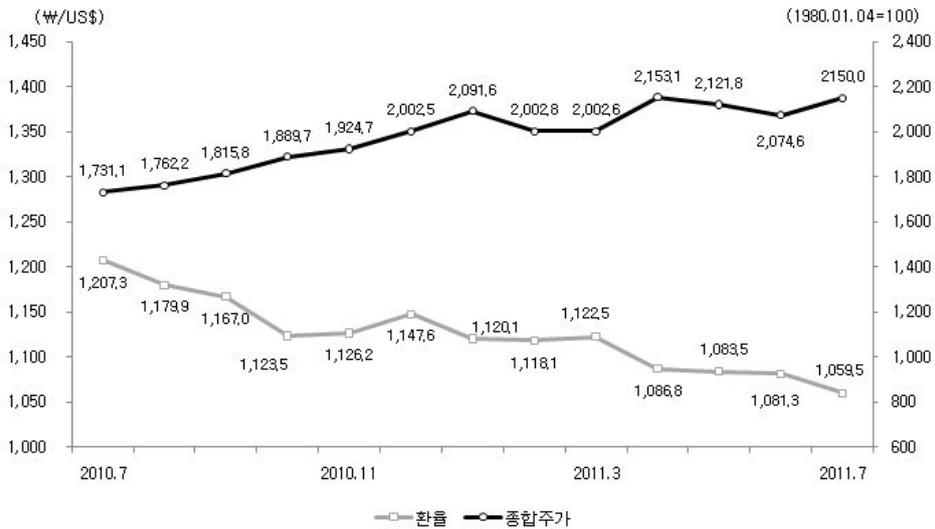
- 7월 중 원/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-21.8원 하락하여 7월 중으로 1,059.5원으로 마감



주 : 기간 중 평균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주요 금리추이



주 : 기간 중 평균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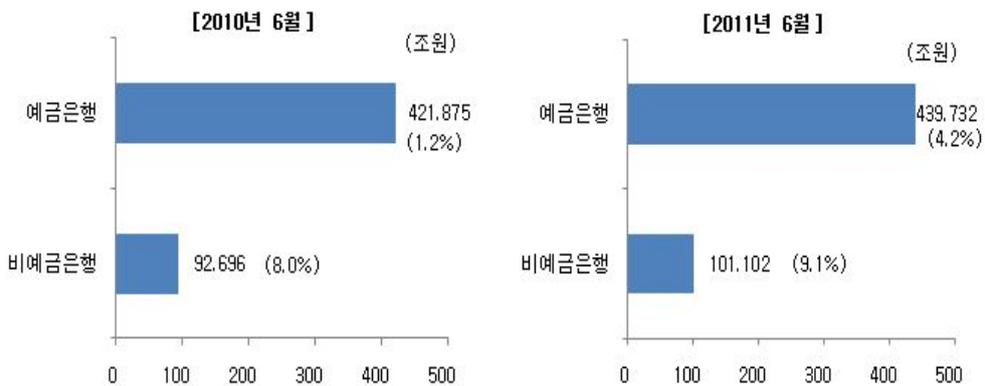
■ 6월 기준 서울지역 전체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

- 6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40조 8,335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5조 2,982억원(0.97%) 감소
- 6월 중 전국의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,364조 6,820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862억원(0.06%) 감소



주 :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종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 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 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■ 5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감소

- 5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172조 187억원으로 전월대비 822억원(0.5%)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1조 619억원(64.8%)으로 전년동월대비 4.6% 증가



주 :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
 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주택대출의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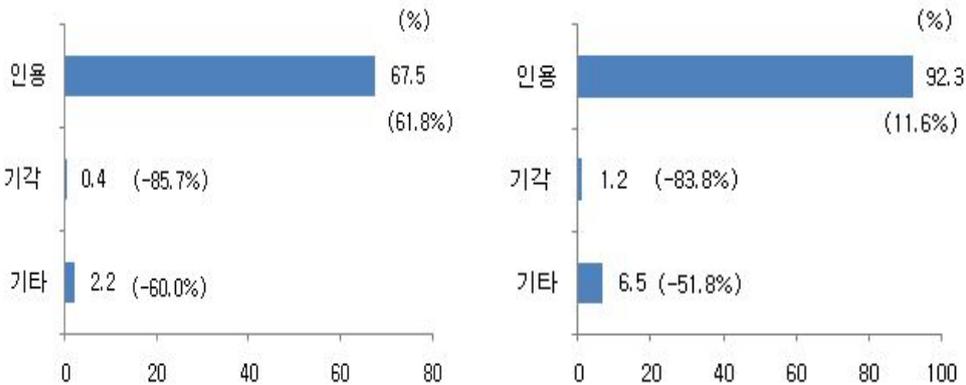
■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

- 7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,154명으로 전월대비 6.3%, 전년동월대비 32.0% 감소
-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0.4%로 전월대비 94.2%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은 1.2%로 전월대비 93.1% 감소



자료 : 대법원

<그림>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



주 :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,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,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대법원

<그림> 7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

<그림> 7월 면책 처리현황

| 신 · 설 · 및 · 부 · 도 · 법 · 인 · 동 · 향 |

서울의 7월 건설 및 설비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서울의 7월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감소,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 신설증가**
 - 7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,918개로 전월대비 6.3%(28개) 감소, 전년동월대비 3.7%(68개) 증가
 -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3.4%(4개) 증가하였고,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전월대비 1.8%(5개), 7.4%(121개) 감소
- 서울의 7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증가,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부도증가**
 - 7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5개로 전월대비 12.5%(5개) 증가, 전년동월대비 19.6%(11개) 감소
 -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76.9%(10개) 증가한 반면, 건설 및 설비업과 제조업은 각각 전월대비 20.0%(2개), 12.5%(2개)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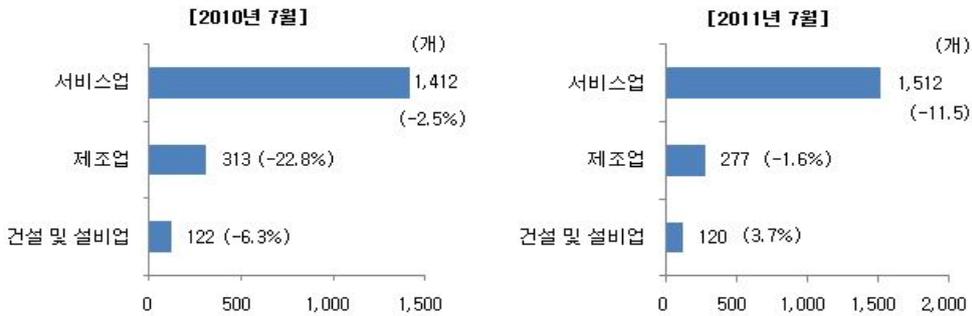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

<그림>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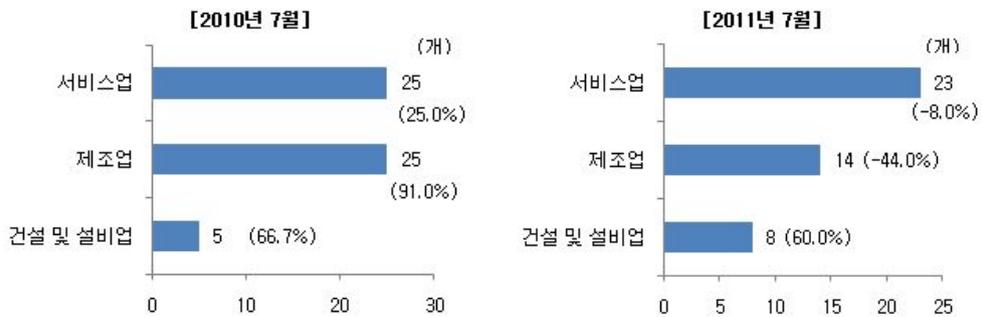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

<그림>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<그림>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<그림>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

■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

- 7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.01%로 전월보다 하락하였고 서울의 신설법인/부도법인 배율은 42.6배로 전월(51.2배)에 비해 감소



자료 : 중소기업청,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/부도법인 배율 동향

| 신·용·보·증·동·향 |

서울의 7월 신용보증 공급금액 전년동월대비 감소

■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 크게 감소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7월 중 2,561건, 77,34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29.8%, 보증금액 34.2%,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6.2% 감소
- 한편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은 각각 62.4%, 24.6% 감소하였고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01.3% 증가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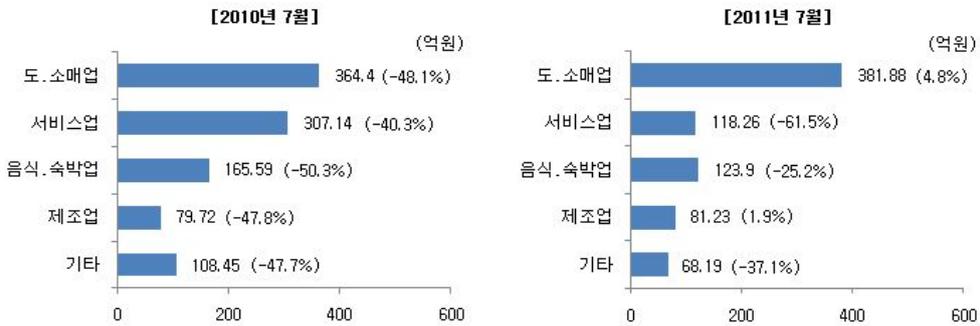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

■ 도·소매업 지원 건수 및 금액 비중 상승

- 7월 중 도·소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49.4%로 전월(40.1%)대비 9.3%p 증가한 반면, 제조업종에 대한 지원은 10.5%로 전월(14.7%)대비 4.2%p 감소
- 보증건수 기준 시 도·소매업종은 43.7%로 전월(38.9%)대비 4.8%p 증가하였으며, 음식·숙박업종은 19.8%로 전월(21.6%)대비 1.8%p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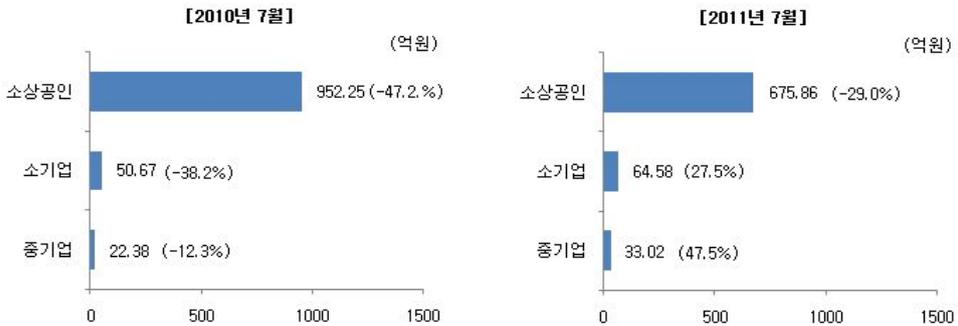
■ 소상공인 지원 건수 및 금액 비중 증가

-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7.4%, 건수기준 94.8%로 전월 대비 각각 9.7%p, 2.4%p 증가
- 한편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8.4%, 건수기준 3.5%로 전월대비 각각 6.3%p, 1.8%p 감소하였고 중기업 비중도 금액기준으로 4.2%, 건수기준으로는 1.7%로 전월대비 각각 3.4%p, 0.6%p 감소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 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그림>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 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그림>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| 수 · 출 · 입 · 동 · 향 |

서울의 7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

■ 서울의 7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7월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1.6% 증가한 55.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7.5% 증가한 105.2억 달러 기록
- 7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5.2% 증가한 505.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5.0% 증가한 442.7억 달러 기록

■ 서울의 7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

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,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656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, 철강관 및 철강선, 반도체, 편직물 등 순
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, 석유제품이 927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, 컴퓨터, 자동차, 의류 등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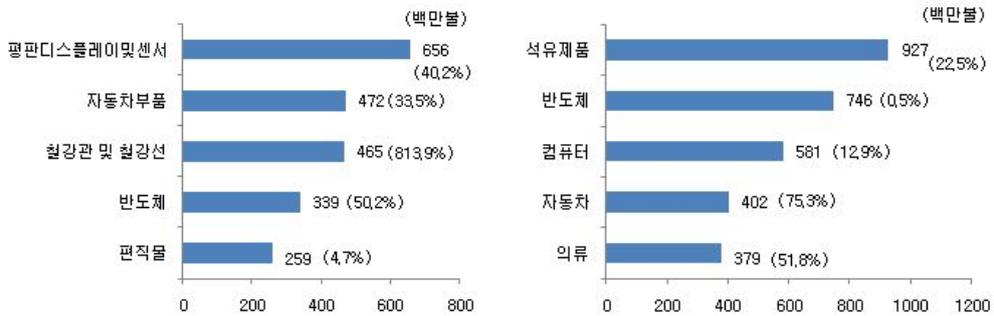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


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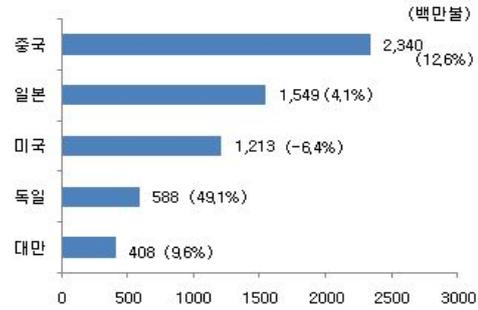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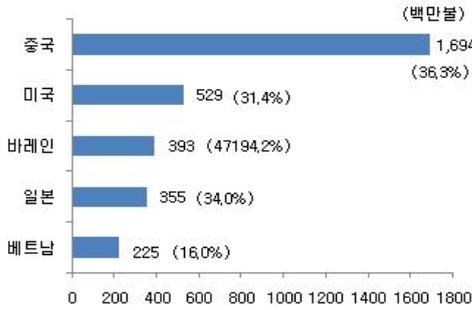
<그림> 7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<그림> 7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■ 서울의 7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36.3% 증가한 1,694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, 바레인, 일본, 베트남 순
- 바레인에 대한 수출이 전월동월대비 47194.2%로 크게 증가하여 393백만불 기록
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2.6% 증가한 2,340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, 미국, 독일, 대만 순
- 독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9.1% 증가하여 588백만불 기록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 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7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<그림> 7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

<표> 7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

구분	순위	품목명	수출		품목명	수입	
			천불	증가율		천불	증가율
미국		합계	528,884	31.4	합계	1,212,513	-6.4
	1	자동차부품	113,978	28.8	항공기 및 부품	111,869	-68.5
	2	무선통신기기	62,708	6.8	육류	103,958	165.0
	3	고무제품	53,576	33.3	기초유분	72,497	71.4
싱가포르		합계	66,540	-2.4	합계	226,897	-5.0
	1	반도체	21,416	18.0	반도체	89,784	-20.1
	2	컴퓨터	4,768	-41.9	컴퓨터	44,563	25.3
	3	기초유분	4,040	172.4	무선통신기기	18,101	-18.9
페루		합계	5,599	12.1	합계	7,044	327.0
	1	철강관 및 철강선	1,171	-	금은 및 백금	5,251	-
	2	고무제품	834	143.4	아연광	479	-
	3	플라스틱 제품	535	181.2	의류	365	-29.1
칠레		합계	13,102	-7.5	합계	63,396	19.2
	1	자동차	4,131	234.1	동제품	34,057	23.7
	2	고무제품	1,729	1.0	육류	12,706	63.2
	3	합성수지	880	87.2	제지원료	4,149	-16
인도		합계	135,155	66.2	합계	258,908	2.9
	1	합성고무	32,558	71.2	석유제품	159,928	-1.8
	2	합성수지	17,988	158.2	천연섬유사	17,791	-36.6
	3	자동차부품	17,536	-6.3	기초유분	16,745	65.3